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일천동 재배단지 「포양」 3면
- 치커리 재배법 4면
- 「이사람」 한방케익 개발한 이수범씨 5면

국산지황판로 빨갛다

값싼 수입산에 밀려 원가보전도 어려워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지황재배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부진하고 있다. 국내 지황수확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산지황 대신 값싼 수

입지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수입산지황은 국내 지황보다 포진거라기 전회 이렇지 않고 있다. 수입산지황은 국내 지황재배 농가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산 지황이 근래 5천원선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비해 수입지황은 국산의 80% 1에도 못 미치는 3천 원 1천 원 수준으로 소량이나 하더라도 일단 수입되면 수입산의 시장안은 물론

소비업체에서 구매자를 찾아다니며 미루어 따라 이틀째 파종시기가 지났는데도 참고보관 과정에서 생산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수입산 때문에 판로도

불확실하고 시세도 안맞아 올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감소했으며 대과하는 농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한약재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농민들에게 도정개발을 통해 재배로 권유한 지황 등 특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산 전량에 대한 구매계획을 세운 후 수입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황기 60t 구매계획

생약협 5억5천만원 상당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12월 초 포천 지역 생산농가로부터 황기 60t(5억5천만원 상당)을 구매할 계획이

다.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생약협회는 매년 하한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약재를 구매해 오고

있다. 인삼추출물 중에는 특히 강정효과를 갖는 것도 있다. 인삼의 원래 가정식품으로 꼽히는 데다 추출물 역시 오부로 민이라는 중추신경 자극성분이 들어있고, 여기에 다시 동양의 대표적 인 정령제인 토사자와 음양과 진액을 추가했다.



◇KBS 2TV 「체험 삶의 현장」 녹화장면 지난달 25일 황포천군 소재 황기밭에서 텔런트 이정섭씨(51)가 황기수확을 하고 있다.

인삼 추출물과 오미자 케익 등 전통생약을 이용한 식품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인삼추출물을 절반이상 섞어 만든 초콜릿, 인삼에 꿀, 영지 버섯, 콩 파우더를 넣은 초콜릿, 인삼 오미자 도라지 칩으로 만든 케이크 등 그 종류는 다양.

인삼 초콜릿? 생약이용식품개발 활기

한 맛과 향 때문에 서양인에게 친숙하게 여겨진 인삼을 초콜릿, 인삼추출물, 오미자 케익, 인삼도라지 칩, 인삼초콜릿, 인삼과 생약 다식, 「선단」의 인삼의 세계화를 겨냥한 상품이다. 「선단」이 세계전이며 약화될 예정인 것으로 보

다.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에서 생약협회는 매년 하한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약재를 구매해 오고 있다. 인삼추출물 중에는 특히 강정효과를 갖는 것도 있다. 인삼의 원래 가정식품으로 꼽히는 데다 추출물 역시 오부로 민이라는 중추신경 자극성분이 들어있고, 여기에 다시 동양의 대표적 인 정령제인 토사자와 음양과 진액을 추가했다.

우리생약살리기 일환

제3회 우수 국산한약재 전시회

“우리땅에서 자란 우리 약재가 몸에도 좋습니다”

일시 : 1996년 12월5~11일까지
장소 : KBS 88체육관(새마을 본부내)
주최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후원 : 농림부, 한국방송공사, 그린스카우트

- 시내버스 : 106, 22, 388, 588, 128
- 좌석버스 : 62, 63, 68, 70
- 공행버스 : 600, 601
- 지하철 : 5호선(발산역)